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 http://j catholic.or.kr | E-mail | catholic114@hanmail.net



교구장 사목교서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용진성당(1지구)



사진 | 원금식 대건안드레아(가톨릭사진가회)

① 강호 신부(주임) ② 황의준(사목회장) ③ 황채원(사무장) 외 사목회원

입당송 _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대영광송>

제1독서 _ 민수 11,25-29

화답송 _ 시편 19(18),8.10.12-13.14(◎ 9ㄱㄴ)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2독서 _ 야고 5,1-6

복음환호송 _ 요한 17,1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_ 마르 9,38-43.45.47-48

영성체송 _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주보 <숨정어>는 전주교구의 역사이고 소식이며 선교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김종성 베드로 신부
(이주사목국)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사랑 속에 형제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형제의
손 맞잡고 /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
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 주자. /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 ♪

청소년·청년 성가집 「마니피캣」 462장 “함께 가
자 우리 이 길을”의 가사입니다. 저녁 식사 후 묵
주기도가 끝나면 신학교 운동장에 둘러 모여 마침
성가로 참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검은색 정장
을 입은 저학년, 수단을 입은 고학년, 클러지 셔츠
의 부제님과 신부님들 ... 교구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며 살아가는 공간도 달랐지만, 같은 마음에
같은 지향으로 입을 모아 밤하늘에 목이 터져라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
는 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그 누구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
라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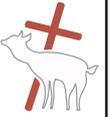
도반(道伴, 불교 용어로 함께 도를 닦는 벗의 의미)으로
또 이 세상에 하느님을 전할 도구로 살아가길 바
라는 마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가는 이 길이 ‘나’ 혼
자가 아닌 ‘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 20)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인생의 여정 안에
‘나’와 ‘너’ 그리고 ‘우리’ ‘하느님’이 함께 하게 되
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110차 세계 이주
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라는 주제로 하느님께
서는 역사를 통한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
장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당신 자
신을 동일시한다는 의미에서 당신 백성 안에서 함
께 걸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흔히들 말하는 깔딱고개. 죽
을 만큼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이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등으로 전해진다면 우
리는 힘을 내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 정
책 변화로 삶의 자리를 위협받는 이주민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인 이주민들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
닌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
는 인생이라는 큰 산을 오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함께”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극단을 넘어 대화와 화합을

87세 고령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에서 출발하여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역대 가장 긴 사목 순방을 마쳤다. 그것도 그리스도교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유럽이나 남미국가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슬람교 신도들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싱가포르 국가들을 찾은 것으로 소위 변방사목인 것이다. 방문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심각하게 훼손되는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갖자는 호소이며 한편으론 무슬림국가에서 소수종교로 살아가는 가톨릭신자들을 위로하고 대화와 화합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현직 교황의 인도네시아 국가 방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최대 이슬람사원의 지도자 대이맘 나사루딘 우마르와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이는 가톨릭교회와 이슬람교의 수장들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 사실상 성서적 뿌리로만 보아도 구약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두 종교는 일정 부분 유사한 믿음을 공유한 것으로, 세상의 어느 종교들보다도 상호소통이 가능한 종교임에 틀림없다. 두 수장의 만남은 소위 형제들과의 조우인 셈이다.

교황도 이점에 주목하며 “형제애와 연민은 정의를 향한 꿈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과 협력하고,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고, 자선을 매개로 네트워크와 경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선이고 사랑입니다.”라며 이슬람교가 실천하려는 절대

적 가치를 관통하며 말하고 있다. 또한 교황의 인도네시아 안에서의 순방주제인 ‘신앙·형제애·연민’은 이슬람교가 실천하려는 핵심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이슬람교내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하였고, 방문기간 중에도 극단적인 분위기는 팽배하였다. 교황은 종교적 극단주의를 경계하고 종교 간 대화와 화합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며 이러한 노력은 “종교를 왜곡해 기만과 폭력으로 자기 견해를 강요하려는 극단주의와 편협함에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를 통해 편견이 사라지면 상호 존중과 신뢰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금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형제애를 강조한 셈이다.

요즈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배사제들의 말씀이 비로소 뼈 있게 와닿는다. ‘열심히 믿기보다 올바르게 믿어야 하고 신앙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신앙이요, 자기 변화 없이 하느님과 자기 주변 사람들의 변화만을 바라는 믿음을 미신적 신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과연 성숙한 신앙인인가?’ 자문해 보며 또한 참된 자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한다.



이덕근 사도 요한 신부
(영등소라성당)



故 김진소 대건안드레아 신부 장례미사 및 고별식



故 김진소 대건안드레아 신부(향년 84세)의 장례미사가 9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중앙 주교좌성당에서 이병호 주교 주례로 교구 사제단, 수도자, 유가족 및 신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이 주교는 강론에서 “한평생 스스로 연구해 오신 초기 우리 교회 역사의 순교자들, 그에 못지않게 그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언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모습 그대로 살아온 김진소 신부님을 오늘 하느님 품에 안겨드립니다.”라고 추모했다. 실로 故 김 신부는 생전 “내 일생의 답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살이다. 우리 교구의 교회사를 쓰면서

삶으로 신앙을 증거 한 푸른 순교자들이 많아 행복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신부는 1940년 충남 금천에서 태어나 군산 둔율동본당에서 세례를 받고 1972년 사제로 서품되어 중앙 주교좌본당 보좌신부를 시작으로 임실·순창본당 주임을 거쳐 1973년 대건신학대학(광주가톨릭대의 전신)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교회사를 집필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1975년 화산본당(현 나바위성당), 1977년 둔율동본당 주임을 역임한 후 1982년 교구사 편찬을 담당하며 5년여 동안 전국 564개 공소를 답사, 1983년 호남교회사연구소를 설립했다. 1988년 천호성지 피정의 집, 1992년 호남교회사연구소를 전담했고 1995년 전동성당 100년사를 발간, 1998년 교구사 연구 20년의 결실인 <천주교 전주교구사 I, II>를 봉정했다.

배낭에 지도와 나침반, 녹음기, 고문서를 들고 전국을 누비며 “오직 순교자들처럼 살고 싶고 늘 책상 위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던 김 신부는 9월 15일(주일) 오전 6시 전북대병원에서 숙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유해는 치명자산성지 성직자 묘역에 안장됐다.

| 현화진(교구 기자단) |

서해젓집

국내산 새우젓 및 각종 고급 젓갈류 도·소매
삼전동 농협 공판장 내 위치
염점례 리더야
063)227-8111 / 010-3675-0091

아름다운 김현숙안과

쌍꺼풀수술·상안검성형술·하안검성형술
성형안과 정희원
원장 김현숙 레지나
신시가지 국민은행 5층 063)225-7717

성바로복지병원

양·한방 협진, 수술 후 회복기, 암 환자
만성질환, 기타 요양이 필요한 질환(면회 가능)
샬트르성바로수녀회 운영
063)249-3300~3302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냐시오) 박민정(루피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필리핀 성지순례(세부)

순례기간 : 2024년 12월 2일~6일
하늘 고속 관광
최석재 스테파노
063-286-9595 / 010-3044-5009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라파엘특선(동반자 100만원 할인)
11.17 / 2.14 / 3.14 시칠리아-몰타 10일
1.15 / 2.11 / 3.11 포르투갈 일주 9일
유재구 요한 02)778-8565

황규진 신부 모친 故 장옥란 엘리사벳 자매 장례미사

황규진 신부(어양동 주임) 모친 故 장옥란(엘리사벳, 향년 72세) 자매의 장례미사가 9월 16일(월) 월명동성당에서 봉헌되었다. 김창신 신부(교구 총대리)가 주례한 장례미사에는 교구 사제단과 신자들, 유족들이 함께 하였다.

총대리 신부는 강론에서 “고인은 1985년에 세례를 받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며 교회 활동도 성실히 하였다. 소소한 일상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범한 옆집 성인으로 살았기에 아들도 사제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며 “작년에 암 발병으로 투병 끝에 하느님 품에 안긴 고인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희망하는 신앙인이었다.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고인을 주님께 맡겨드리자.”라고 추모했다.



황규진 신부는 고별식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 가지고 있는 물건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고 머릿속과 마음속에도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다. 어머니가 평생 해주시던 양념계장을 이제 다시 못 먹겠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전했다. 고인의 유해는 천호성지 내 봉안경당에 안치되었다. | 취재 : 신현숙, 사진 : 김영수(교구 기자단) |

Photo 소식











+ 대학별 개강미사

- ① 군산간호대학교
- ② 전주교육대학교
- ③ 전주대 & 전주비전대학교
- ④ 전북대학교
- ⑤ 원광대학교
- ⑥ 군산대학교
- ⑦ 우석대학교

- **사제평의회·재무평의회 합동회의**
10월 2일(수) 오후 2시 30분 교구청
- **교리교사의 날 미사**
10월 3일(목) 오후 3시 30분 삼례
- **원로사제 초대일 날**
10월 4일(금) 오전 10시 교구청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피정**
10월 26일(토) 15시~27일(주일) 13시
장소 : 평화의 전당
주관 : 전북가톨릭간호사회

이번 주 교구 행사

- **9월 30일(월)**
-사랑의 다리 6지구 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영등소리)
- **10월 1일(화)**
-익산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부송동)
- **10월 4일(금)**
-사무장원연합회(오후 5시 30분 교구청)
-제6기 생태사도영성학교(오후 7시 교구청)
-4050대 엄마 아빠를 위한 음악피정
(오후 7시 유항검관)
- **10월 5일(토)**
-가정사목국 봉사자 엄마와 딸 피정
(~6일, 광주 까리따스수녀원)

★새만금 생태계 복원 기원 월요미사
출발 : 매주(월) 오후 1시 30분 교구청
미사 : 오후 3시

교구 내 알림

- **어양동성당 교중미사 반주자(유료) 모집**
문의 : 063)831-4050, 010-2603-3153
- **성모기사회 성모신심미사**
10월 5일(토) 오전 9시 20분 효자동
오후 7시-젊은이들을 위한 신심미사
문의 : 010-8627-5742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10월 6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덕진성당
문의 : 010-9353-1773(미리 연락)
- **전주 ME 새신주말**
10월 19일(토)~20일(주일) 평화의전당
문의 및 접수 : 285-1031 가정사목국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4일(토) 선종하신 저의 모친
故 장옥란(엘리사벳)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신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규진 신부 가족 올림-

교구 밖 알림

-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언제 : 매월 둘째 주일
장소 : 도미니코수녀원(서울 미아동)
문의 : 010-5604-1882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 10.19~20/11.2~3
3박 4일 : 10.24~27/11.28~12.1
8박 9일 : 10.7~15/11.14~22
장소 :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 010-4906-5722/031)953-6932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성소 모임**
자격 : 메르세데스 성모님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젊은 여성
일시 : 수시
장소 : 전화 상담 후 결정
문의 : 010-4627-0295(손 카타리나 수녀)
-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안내**
일시 : 언제나라도 문의 받습니다.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382-2214/010-7159-9674

진 선 미 꽃 집

전국 꽃배달 서비스
범근배(방지거),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063)222-0004 / 010-3678-2628

하 나 투 어 미 래 관 광

꿈꾸는 대로, 펼쳐지다!
하나투어 공식인증 예약센터
미래관광 063)285-1365
변효석 루도비코 010.6797.8291

남문앤몰·남문문구센터

진주시 보건소 옆
문화누리카드/각종 지원금 가능
문구·완구 외 5만가지 상품몰
063)283-9100 원수관 야고보·심경이 마리아

서울영상의학과 MRI센터·심장센터

최신 AI장착 3.0T 지멘스 MRI 도입
심장초음파CT, 특수촬영
박인숙 아나다시아, 설명진(영상의학과)
김원호 베드로(심장내과) 063)278-1313

전일관광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그리스.알바니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
보스니아.이탈리아(매일 미사 드립니다.)
2025년 2월 17일~28일(12일간)
전일관광 조진 안토니오 063-288-6666

양빛나 유외과

유방 감상선 전문의·여성 전문의
원장 양빛나(리나), 이주환(요한)
효자동 홈플러스 맞은편 하나은행 4층
063)228-9336

문실버요양병원(구, 문병원)

가톨릭 신자 내원 시 우대 혜택
원장 : 문지식 레나도, 기순중 안젤라
위치 : 경원동 KT 사옥 옆
063)282-8833~6/284-2918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근력향상 위한 놀이 / 재활 물리치료
우울증.치매예방 뇌기능 개선 프로그램
전주노인건강복지센터
홍수현 테레사 010-2655-4222

백마 익스프레스

포장이사/일반이사/반포장/이사전문업체
이정환(마르코) 이정미(프란치스카)
063)253-2452, 244-2408~9
010-5678-2486

2025학년도 학교법인 해성학원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학교법인명	임용예정학교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국어	수학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일본어
해성학원	전주해성중		2		1			
	전주성심여고		1				1	1
	전주해성고	1		1		1		

2) 응시자격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3) 응시원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https://edurecruit.go.kr>】 을 통하여 인터넷 접수
<2024.10.14.(월) 09:00~10.18.(금) 18:00(5일간)>

* 지원방법 :우리 법인은 ③사립만 지원 가능함.

* 타 시도 공·사립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립 중등학교사 임용시험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학교법인 해성학원 소속학교(4개교) 홈페이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학교법인 해성학원 이사장 김선태 주교

(전주성심여자중학교,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전주해성중학교,전주해성고등학교)

2025 교구 달력 신청하세요

2025년 교구 달력은 전주교구 가톨릭사건가회원들의 작품을 받아 '성가정' 관련 성경 구절을 넣어 제작하였습니다. 성가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숫자판에 전례력과 교구장 일정 및 행사 등을 보기 쉽게 색깔로 표기했습니다.

해마다 제작되는 교구 달력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각 본당과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 마감 : 10월 3일(목)
- 대상 : 본당, 기관단체(개인은 100부 이상 주문시 가능)
- 단가 및 사이즈 : 43cm x 62cm / 1부당 @3,600원
- 문의 : 230-1166, F 230-1175 / catholic114@hanmail.net 홍보국

